

# 노후적응과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김 효 심\*

## 〈 목 차 〉

- |                       |                         |
|-----------------------|-------------------------|
| I. 서 론                | 4.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별 상호 작용내용 |
| II. 노후적응과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 | III. 결론 및 제언            |
| 1. 노인의 개념             | 참고문헌                    |
| 2. 노후적응               | Abstract                |
| 3.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 및 기능   |                         |

## I. 서 론

노후의 생활과 관련, 가족의 지원에 대한 의미는 이제까지 노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부양을 받는 가족부양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노년에 관해 사회적으로 구축된 현실을 볼때 노령화사회의 부담을 선가정 후국가(또는 사회)에서 저야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노인을 부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래의 미풍양속으로서 의식내에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져왔으며 전통적으로 노인부양 및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이 맡아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원의 가치관이 바뀌었으며, 가정내에서 직접적인 부양역할을 맡아오던 여성의 취업증가와 그에 따른 의식구조의 변화등으로 인해 가족이 과거와 같은 노인부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지위와 역할이 확고하고 사회규범 또한 효와 경로사상이 투철하여 노인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로 인한 사회구조적 측면의 제반 변화들은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지위하락을 초래하였으며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안정된 지위와 역할들을 점차 상실시켰고 가족과 직업, 지역사회로부터 제도적으로 고립시켰다. 노년기에 겪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약화와 가정적, 사회적인 역할상실로 인한 활동상의 제약 및 축소와 같은 많은 변화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노후생활적응을 어렵게하고 이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인해 더욱

\* 제주교육대학교 전임강사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노후에 겪게되는 고독과 소외, 심리적 부적응 등 노인문제를 극복하고 노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내에서의 지속적인 역할수행을 통해 자연스런 통합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대체로 생활주기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수행 및 적응과업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환경과 그 변화에 대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타인, 그리고 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연, 지연등에 기반을 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 및 가족과 함께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되며 노후생활에서 상호의존 대상이 되기 때문에(Harel & Deimling, 1984)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족 부양의 확장 내지는 보완책으로서 지역사회보호를 통한 사적부양의 범위를 확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의 노인관련 연구들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개념을 가족과 더불어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일차적 집단과의 관계에 집중시켜 노후생활과의 관련부분을 고찰해봄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새로이하고 노후생활 지원체계로서, 또한 가족부양의 보완체계로서 사회적 관계망의 유용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 II. 노후적응과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

### 1. 노인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의 정의도 다양하여 그 개념규정에 논란이 많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특정한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 이를 개념화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노인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노령의식과 객관적인 상태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노화속도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운진(1985)은 5가지 연령 분류를 통해 노인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력에 의한 신체적 나이(Chronological age)와 개인의 성숙이나 신체적인 건강수준에 따른 생물학적 나이(Biological age), 심리적 성숙과 적응에 관련된 심리적 나이(Psychological age),

주) 노인부양에 대한 개념은 크게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공적부양은 20세기초에 들어오면서 서구사회에서 발달한 사회보장제도나 공적부조에 의한 사회적 수준의 부양을 말하며, 사적부양은 한국을 비롯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부양체계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주체가 가족, 친척 및 친구 등에 의한 개인적 수준의 부양을 말한다. (김태현, 1981).

사회에서 규범으로 정해진 사회적 나이(Social age)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자각적 나이(Self awareing age) 등으로 이들의 종합개념으로서 노인을 이해하고 있다. 국제노년학회의 정의를 보면, 노인이란 노령화의 결과로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 결함을 가진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조직 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가고 있는 사람,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감퇴현상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김태현, 1981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실제 연구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는 문제가 있다. 대체로 신체적인 나이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며 구미에서는 보통 65세 전후를 노인규정 연령으로 보고있지만(Medly, 1976) 우리나라의 경우 만 60세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60세를 노령에 이른 것으로 축하하고 있고(회갑), 국민연금법상으로도 완전 노령연금 수혜연령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장인협 최성재, 1987). 김종서 등(1982)이 제시한 한국인의 발달단계 분류에서도 60세를 기준하여 그 이후를 노년기로 보고 있으며 그 외 정년제, 조부모가 되는 나이, 대한노인회의 가입연령 등을 기준으로 60세 전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2. 노후적응

자녀의 독립, 결혼등에 의해 가족이 축소되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의 상실과 친지와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친밀한 인간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은퇴로 인해 사회적 인간관계가 축소되어 심각한 역할상실을 경험하게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노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적응을 고찰함에 있어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심리적 적응을 다룬 인간발달 이론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Havighursts(1972)는 1) 약화되는 신체적 힘과 건강에 대한 적응 2) 퇴직과 경제적 수입감소에 대한 적응 3)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 4) 동년배 집단과의 유대관계 강화 5) 사회적 역할을 융통성있게 수행하고 적응하는 일 6) 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생활 환경의 조성 등 6가지를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노인은 행복을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장인협 최성재, 1987에서 재인용). 장진호(1985)는 노년기의 과업을 1) 노인 생활을 위한 적절한 준비, 2) 수입감소에 대한 적응, 3) 부부간의 상호이해와 배우자 사망시의 적응, 4) 자녀, 손자녀들과 적절한 관계유지, 5) 연로한 친척을 돌보아주는 일, 6) 적절한 여가선용의 방법, 7)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로 제시하고 있고, 김종서 등(1982)도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지적, 신체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

으로 2가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적 영역에서는 1) 세대차와 사회변화를 이해하기 2) 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생활을 배우기 3)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최신 동향을 알기 4) 건강증진을 위한 폭넓은 지식을 갖기를, 정의적 영역에서는 1)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2)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3) 정년퇴직과 수입감소에 적응하기 4)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5) 배우자 사망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6)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를, 사회적 영역에서는 1) 동년배 노인들과 친교를 유지하기 2)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책임을 합당하게 물려주기 3)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른구실을 하기 4) 자녀 또는 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신체적 영역에서는 1)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기 2) 노년기에 알맞은 간단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3) 건강유지에 필요한 알맞은 섭생을 하기 4) 지병이나 쇠약에 대해 바르게 처방하기를 들고 있다.

노년기의 발달과업은 은퇴후의 생활에의 적응 또는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노인기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의존욕구가 증대되는 시기이자 이는 타인과의 만족스러운 유대관계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사람들과의 좋은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일차적 집단과의 관계 즉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비롯, 친척이나 친구, 이웃과의 친교등 기본적인 사회관계망과의 유대관계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에는 발달과업 완수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화롭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통해 변화된 역할과 환경에의 적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3.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 및 기능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은 아직까지 없지만 대체로 실제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있고 정서적 물질적 신체적 서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유대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의 모든 사회적 대인접촉을 포함하므로 가족, 친구, 이웃, 동료, 그리고 공식, 비공식적인 지원자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평생동안 역할에 따른 의무와 상호관계의 변화에 기초를 둔 집단이므로 동적인 특성을 갖는다(Ell, 1984).

현대에서의 가족부양의 문제점과 공적부양의 정서적, 재정적, 도덕적 측면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개념은 관심을 끌게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에 맞지 않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에 따른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와 의무감에서 벗어지는 역기능 현상,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나 서서비스, 시설부양 등 공적부양 측면에서의 여러 문제

점들이 노년기 특유의 의존성, 사회적 고립, 윤리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은퇴에 따른 역할 상실감을 보상하고 바람직한 역할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주체로서 가족적 지원의 확장이라 볼 수 있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이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이다(Antonucci, T. C. 1987).

은퇴 후의 적응을 높이는데 있어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변화된 역할의 수용능력과 성공적인 수용이며, 사회적인 환경속에서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s)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부여라고 할 수 있다(Harold, 1984). 그러므로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등으로 구성된 일차적 집단인 사회적 지원망과의 상호작용은 노후생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들과의 건전한 유대관계형성을 통해 노인은 심리사회적인 의존욕구를 충족시킨다. 사회적 지원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을 줄이고 생활사건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다(최정아, 1991). 따라서 노인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지원을 주고 받는가하는 점은 노후생활의 적응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심리적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외국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사회적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 원조관계망, 사회적 자원, 지원체계, 비공식적 지원망, 사회적 지원체계, 사회적 지원망 등 수많은 관련 주제를 통해 노인의 스트레스, 우울, 디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복지감 등 주로 노후적응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관계내에서 노부모와 자녀세대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친척, 친구관계, 형제자매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따로 또는 합해서 연구하고 있다(Adams, 1968 : Antonucci & Akiyama, 1987 : Arling, 1976, 1987 : Bankoff, 1983 : Beckman, 1981 : Bengtson & Cutler, 1976 : Brown, 1974 : Cobb, 1976 : Dimond, et al., 1987 : Ell, 1984 : Harel & Deimling, 1984 : Hess & Waring, 1978 : Krause, 1986, 1987 : Lee, 1979 : Leigh, 1982 : Lin & Dean, 1977 : Lopata, 1973 : Morgan, 1989 : O'Bryant, 1985 : Petrowsky, 1976 : Rosenmayr & Kockeis, 1963 : Shanas, 1973 : Snow & Gordon, 1980 : Thoits, 1982 : Walker & Thompson, 1983 : Ward, 1985).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적 관계망이 모든 대인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대인관계를 말해주는 일차적 집단과의 관계에 초점을 모으고 있고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상호작용은 주로 가족, 이웃, 친구, 친척등의 일차적집단과 교환가능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주고받는 지원은 감정적인 교류와 결속같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적응을 돕고 신체적 보살핌을 비롯 경제적 측면의 지원도 가능하며 사회적 역할제 공의 장으로서 기능을 한다(ElI, 1984 : Cobb, 1976 : Thoits, 1982 : Snow & Gorden, 1980 : Lin et al., 1977). 개인이 보호를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며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고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상호책임의 관계망 속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물질적인 도움과 서어비스, 조언, 지도, 칭찬, 관심, 사랑, 인정, 도움, 이해, 가치감, 의사전달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 필요할 때 감정적인 지원과 원조 및 자원을 제공해 주리라고 믿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감정, 존중, 인정, 소속감, 주체성, 안정감등 기본 사회욕구의 충족을 꾀할 수 있는 것도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가능하다. 노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교환함으로써 노후적응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4.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별 상호작용내용

##### 1)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공유된 경험이나 애정이 가장 많은 관계가 가족이다. 가족은 원초적 집단으로서 개인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로 인간 소속, 결속 및 큰 기대감을 갖게되며 만족감, 행복, 희망등의 큰 근원이 된다. 따라서 물질 및 정서적 측면의 의존 대상으로서 노인에게 있어 가족이 갖는 의미는 크다.

첫째로 배우자의 생존은 노후생활에 있어 커다란 위안이 되며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의논상대로서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노년부부의 정서적인 유대는 예상보다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정은, 1989)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노년기에는 대체로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서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더욱 의지하고 아껴줌으로써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은퇴후의 삶에 있어 자녀가 결혼하더라도 동거하기보다는 별거자립형을 희망하는 중·노년기 부부가 점점 늘고 있고(서병숙, 1988), 평균수명의 연장과 자녀양육기의 단축으로 자녀의 성장 후 또는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를 떠난 후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이제껏 노인관련 연구가 부부관계를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아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년기의 부부관계 및 결혼적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줄고, 1993).

노년기 부부는 직업과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부부서로에게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자녀와 자주 접촉하지는 않더라도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그 외 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여가 활동 등을 하기도 한다. 노년기 부부에게는 역할 재적용의 문제와 성적 적응 문제, 자녀와의 관계, 조부모 역할, 배우자의 사별에 대한 사회심리적 적응 등이 중요하다.

둘째로 노인과 자녀세대와의 관계는 대부분 부양을 중심으로 한 관계연구가 대부분으로 자녀세대에 의한 부양은 한국노인에게서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도'나 '경로'라는 사회규범을 적극 개발하여 한국적인 또는 동양적인 복지모델로까지 개발시키고자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혜순, 1989). 우리나라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구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제 다수의 노인들이 여전히 자녀에 의해 동거부양을 받고 있다고는 해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가는 반면, 핵가족형 노인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식들과 같이 살면서 부담이 되기보다는 자식들과 따로 사는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서도 노년부부의 자녀세대와의 관계는 부모와 같이 살면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따로 살면 오히려 대우받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원순영, 1985).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부양의 변화와 함께 자녀뿐 아니라 노인세대 측에서도 자녀세대와 따로 살기를 바라는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즉 핵가족화에 따른 기혼자녀세대의 부부중심적 사고에다 노인들 스스로 자식과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자각이 더해져 세대간의 거리는 점점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기 경험세계가 다르고 학력차나 개별화 경향등으로 세대간에 분리는 내면적인 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선호하는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경쟁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바쁜 생활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려하거나 혹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부모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현대에는 부모부양의 문제나 자녀세대와의 관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기혼자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동거여부보다는 부모,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대의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더라도 가까이 살면서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자주 연락을 취하는 등 자녀와의 유대를 통해 정서적 지원이나 경제적, 신체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으며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볼 때 노년기에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수의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주는 자원 제공자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거를 전제로 했던 전통적인 노인부양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노인부양의 형태와 내용이 변화해도 정서적인 부양의 근원으로 가족이 아직도 대부분 결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각종 서어비스 교환의 장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말해준다(Harold, 1984). 노후생활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완화시켜주고 경제적 문제해결의 측면등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자원으로서 자녀와의 밀접한 유대 관계는 동거여부를 초월하여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같은 실태를 뒷받침 해주는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개념으로서 세대간의 관계에 있어 그 변화내용을 알려주는 용어들을 소개하면 (1)수정된 확대가족체계(a modified extended family system) : 세대간에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지만 가족원들이 빈번한 접촉과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Troll, 1971) (2)원거리의 친밀성(intimacy at a distance) : 멀리 떨어져 살아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Rosenmayr & Kockeis, 1963) (3)회복 가능한 단절(revocable detachment) : 가족원이 서로 필요할 때 정서적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관계(Rosenmayr & Kockeis, 1963) 등이 있다.

세째로 손자녀와의 관계 역시 노인에게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적은 자녀를 가짐에 따라 자녀양육기는 단축됨과 동시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중년기와 노년기에 보다 일찍 조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인의 조부모 역할수행은 노년기의 가치있는 과업이며 노후적응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고 손자녀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Richard Kalish(1975)는 조부모와 손자녀의 밀접함은 그들이 나누는 생활환경의 공통점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둘 다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 비생산적 역할로 여가생활을 하며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부모는 조부모 역할을 좋아하든 안하든 최소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는 사실때문에 그들의 역할을 즐기게 된다고 한다(Harold, 1984에서 재인용).

그러나 자녀와 동거하지않는 고령부부는 전통사회에서 손자녀의 가정교육등 주로 정신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물질적인 형태의 조부모 손자녀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고 의식면에 있어서도 손자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물질적인 것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많다. 따라서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원순영, 1985). 손자녀의 양육책임도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주어진 조부모역할만을 하려고 하고 맡아서 기르는 것 보다는 가끔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손자녀와의 관계 역시 자녀세대와의 거리 및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역시 변화된 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노인이 손자녀에 대해 양육과 충고, 훈육등 조부모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 과거 전통적인 가족체계와는 달리 현재의 가족구조에서는 질적인 측면에서 호혜적인 상호작용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가치있는 자원으로서 손자녀와의 관계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 2) 형제자매 및 친척

노인에게 있어 형제자매는 동시대를 살아온,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까운 친척이다. 따라서 신체적 병환, 불의의 사고,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정신적 어려움등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게되며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서로 보살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 관계이다. 한국사람 대부분은 친척관계가 좋으면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친척간에 우애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상해한다. 또한 친척이 의뢰심과 부담을 주는 존재이기보다는 가정생활에 있어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라 생각하고 있다. 도시화, 산업화될수록 점차 친척관계는 멀어진다고 하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박인덕, 1979). 특히 홀로된 노인이나 자녀가 없는 노인, 결혼한 적이 없는 노인들에게 비중이 큰 관계망이 형제자매관계이다. 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는 가장 오래 지속된 관계이자 함께 자라나 공통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관계이므로 비교적 나이가 비슷하여 공통된 느낌과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서 형제자매간의 유대가 돈독할수록 노인에게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지원의 요소가 될 것이다.

노년기에 형제자매관계에 관해서는 외국의 연구들이 많으며 상호작용내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즉 일생동안 변함없이 일정한 접촉을 하고 인정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견해(Antonucci, T. C. 1985)와 사회활동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형제자매와 접촉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보는 견해(Brown, 1974), 그리고 사회에서 은퇴는 마찬가지로 친척과의 유리를 수반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가 감소하고 또한 형제자매관계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노년기에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오히려 상호작용이 감소한다고 하는 견해(Gibson, 1972)가 있다. 형제자매관계의 인식에 대해 다양한 결과가 있음에도 형제자매등 친척과의 규칙적인 접촉은 노인의 자아확인과 신체적, 재정적, 정서적, 심리적 지원의 의미가 크며 특히 가족부양의 보완체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 3) 친 구

증가된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 친구는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대상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고립과 상실감을 크게 경험하는 은퇴기 노인에게는 친구가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친구나 동료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새로운 활동이 만족스럽다면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은퇴자 자원봉사 프로그램(Retire senior volunteer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되며 자존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활동을 유용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의미있는 타인도 중요한 활동으로 생각하게 된다. 어떤 연령에서나 유용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자신이 정의하거나 또는 의미있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은퇴시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고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부정적 유리는 일어날 필요가 없다. 단체모임에 참여하는 노인, 그리고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사회적 활동과 그 성원과의 친밀한 관계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며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서 중요함을 말해준다. 대체로 노년기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고 건강이 양호하며, 이웃에 노인이 많고 한 곳에 오래살고 대도시보다는 소읍에 사는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많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Riley & Former, 1968).

노인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사기를 높이고 생활만족과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즉 노인들은 욕구 관심, 경험을 같이하는 친구와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도움과 심리적 보상을 받는다. 따라서 완전히 사회와 유리되거나 아니면 활동적으로 재참여하는 방법만이 아닌 선택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친구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노인에게 있어 각종 도움과 서비스 교환의 대상으로서 역할을 하며 대리가족성원으로 노년기 가족부양, 가족, 친척교류의 단점을 보완한다.

#### 4) 이 웃

이웃은 지역적으로 근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일차적이고 비공식적인 집단으로서 그 경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비교적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호간의 대면적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을 제공해주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유익한 부양보조 집단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활동범위가 축소되고 집에서 한가롭게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노인에게 있어 이웃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증가한다. 특히 이웃은 지리적 근접성이 그 특징이며 따라서 자주 대면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의 일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이웃과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진다. 특히 가족이 없이 혼자사는 노인이나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 또 가족과 멀리 떨어져살거나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웃의 역할은 더욱더 비중을 갖게되어 노후적응을 높이는 유용한 체계가 된다. 한 동네에 산다고 해도 모두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노인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자원, 충분한 교육이 변수로 작용하며 상호작용의 용이함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기 쉬운 관계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Lopata, 1973). 이웃과의 상호작용은 보다 실제적인 것이어서 노인의 건강이나 안녕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등 기능적인 도움을 준다.

### Ⅲ.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노인의 주변생활을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가족, 친구, 이웃, 친척 등 일차적 집단으로 한정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개념과 구조,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노후적용에 있어 노인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에 관해 이론적인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보다 노후생활과 밀접한 가운데서 부양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노후적용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노인의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주제로서 이제까지의 고찰을 통해 질적인 측면에서 친밀하고도 유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회적 관계망은 노후생활의 문제점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노후적용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서 노인부양의 보조체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노년인구의 증가와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한 노인부양의 문제는 가족이나 시설보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변해가는 가족과 사회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부양의 실질적인 부담을 져야한다고 믿는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 깊이 파고들면 실질적 노인부양의 주체인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수정이 가해져야 함과 아울러 현대생활에 있어 노년의 위치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제구성 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위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노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거부감, 좌절감을 느끼기 보다는, 사회적 관계망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주고 받음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람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양해질 노후생활 양식에 대비해 은퇴전에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노년기의 생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준비를 하는 등 자기부양의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 및 손자녀와의 유대를 비롯, 이웃, 친척, 친구등과 같은 일차적 관계망내의 유대형성을 통해 노후적용을 위한 지원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 노력하여야겠다.

또한 노화는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생의 한과정으로서 노인 뿐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의지를 수반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확대 및 질 향상을 꾀하고 의료정책을 비롯, 사회적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노후의 생활을 도울수 있는 사회적 복지정책의 올바른 수행과 같은 실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시되는 것은 노화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변화라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며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개인의 문제로 소홀히 여기지 않고 변화하는 개인, 변화하는 가족구조,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부응하는 가치관이나 행동을 발달시키는 것 등 전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노후적응에 대한 연구는 부양을 중심으로한 자녀와의 역할관계 변화와 함께 노년 부부관계 및 그 외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일차적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할 것이다. 즉 변화된 현대의 가족형태와 그 외 사회적 관계망의 유용성 즉 상호작용 내용과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고찰로서 노인의 적응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측정방법 개발을 통해 노후적응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의 실질적인 효과가 검증이 되어야 하겠다. 노후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의 유용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해 몇가지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다차원적 속성을 파악하고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관계망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수 있는 정교한 척도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각각의 구조 및 기능을 명확히 세분화시켜 사회적 관계망내의 성원간에 이루어지는 접촉의 빈도, 지원망의 크기와 거리, 교환되는 지원의 양과 질 등 모든 측면에서 노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자노인과 남자노인의 평균수명에 큰 차이가 있고 노화과정에 대한 경험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성별로 노인층을 분리 조사함으로써 각각의 사회적 관계망의 유용성에 대해 비교분석적 접근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의 죽음은 노년기의 공통된 문제이자 많은 상실감, 고독감을 유발시키는 생활사건이 되므로 배우자 유무별로 노후적응과 관련하여 각기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사회적 관계망이 유용한 작용을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족형태에 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실태를 점검하고 변화한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인 가족관계개선책 및 노인 부양의 보완체계에 대해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 참 고 문 헌

- 김중서, 남정휴, 정지웅, 이용환, “한국에서의 평생교육체제정립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82.
- 김태현, “한국에 있어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김혜순, “노년에 관한 사회적 구성의 비판적 분석”, 한국노년학, 제9집, 1989.
- 김효심, 조혜정, “노년부부의 결혼적응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목포대학교 논문집, 제14집 1호, 1993.
- 박인덕, “한국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일연구”,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1979.
- 박정은,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기초실태조사”, 한국여성노인의 실상과 대책, 한국여성개발원, 1989.
- 서병숙, “노인적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원순영, “노년세대의 핵가족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85.
- 윤진,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5.
-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 장진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서울: 대문출판사, 1985.
- 최정아,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양대석사학위논문, 199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 1990.
- Adams, B.N., Kinship in an Urban Setting, Chicago: Markham, 1968.
- Antonucci, T.C. & Akiyama, H., “Social Networks in Adult Life and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 Convey Model”, J. of Gerontology, 42(5), 51, 1987.
- Arling, G.,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4), 1976.
- Arling, G., “Strain, Social Support and Distrss in Old Age”, J. of Gerontology, 42(1), 1987.
- Bankoff, E.A.,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Widowhoo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1983.
- Beckman, L.J.,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and Childre’s Relative Inputs on Loder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1981.
- Bengtson, V.L. & Cutler, N.E., “Generations and Intergenerational

- Relations", in Binstock, R.h. (ed), *Th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1976.
- Brown, A. S., "Satisfying Relationships for the Elderly and Their Patterns of Disengagement", *The Gerontologist*, 14(1), 1974
- Cobb, S.,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1976.
- Dimond M., Lund, D. A., & Cawerta, M.S.,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First Two Years of Bereavement in an Elderly Sample", *The Gerontologist*, 27(5). 1987.
- Ell, K.,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Social Service Review*, 1984.
- Gibson, G., "Kin Family Network:Overherrald Structure in Past Conceptualizations of Family Functioning",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1972.
- Harel, Z. & Deimling, G., "Social Resources and Mental Heaith;An Empirical Refinement", *J. of Gerontology*, 39(6), 1984.
- Harold, Cox, *Later life;The Realifies of Aging*. Prentice-Hall Inc., 1984.
- Hess, B.B & Waring, J.M., "Changing Patterns of Aging and Family Bonds in Later Life", *The Family Coordinator* (Oct), 1978.
- Krause, N., "Social Sopport, Stress, and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J. of Gerontology*, 41(4), 1986.
- Krause, N.,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in Older Adult", *The Gerontologist*, 27(3), 1987.
- Lee, G.R., "Effects of Social Network On The Family", In Berr, W.R. et al.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New York;The Free Press, 1979.
- Leigh, G.K., *Kinship Interaction Over The Family Life Spa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1), 1982.
- Lin, N. & Dean, A.,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 Support", *Journal of Nervers and Mental Disease*, 165(6), 1977.
- Lopata, H.Z., "Contribution of Extended Families to The Support Systems of Metropolitan Area Widows : Limitations of the Modified Kin Network",

-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1973.
- Medley, M.L.,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 of Gerontology, 31, 1976.
- Morgan, D.L., "Adjustion to Widowhood : Do Social Networks Really Make It Easier?", The Gerontologist, 29(1), 1989.
- O'Bryant, S.L., "Neighbors' Support of Older Widows Who Live Along in There Own Homes", the Gerontologis, 38(3), 1976.
- Riley, M.W. & Forner, A., "Aging and Society, vol.1,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68.
- Rosenmayr, L. & Kockeis, E., "Propositions for a Sociological Theory of Aging and the Famil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15), 1963.
- Shanas, E., "Family-Kin Networks and Ag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1973.
- Snow, D.L. & Gordon, J.B.,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ntervention with the Elderly", The Gerontology, 20(4), 1980.
- Thoits, P.,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982.
- Troll, L.E., "The Family of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1971.
- Walker, A.J. and Thompson, L.,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1983.
- Ward, R.A., "Informal Networks and Well-being in later Life; A Research Agenda", The Gerontologist, 25(1), 1985.

<Abstract>

## Aging and Social Network

*Kim, Hyoshim*

Ch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ull-time instructor

This thesis is written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in adjustment of the aged and used the descriptive method through references and materials relate to the adjustment of the aged.

The main contents of this thesis is :

1. concepts on aging
2. developing tasks in later life and adjustment of the elderly
3. concepts and function of social network
4. patterns of social network of the aged
5. alternatives for adjustment of the aged

It is found that social network is important factor with functions of the emotional support, role-giving, and instrumental services for the aged to solve the varied problems in later life and to help their adjustment. For the adjustment of the aged, it's very important the function of social network—their family, friends, kin, neighbor, etc.—. The aged should try to be psychologically independent and to adjust to new roles, status and altered styles of life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network.

The following approaches about the adjustment of aged from now on should be focused on an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structures and functions of the social network, and influences on the adjustment in later life.